

ESG Wannabe

SK증권 Active전략팀

계약/바이오, 이달미. 3773-9552



ESG 중 'E'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한 국내 제약/바이오 기업들

● 일부 국내 제약업체들 '친환경화' 추진하나 아직은 미미

-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의 날을 맞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, 탈플라스틱 등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음.
-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의 ESG 법제화를 추진, 특히 환경 영역의 규제에 이미 나서고 있음.
- 암젠은 탄소 배출량과 폐기물 처리량 감소 및 수자원 보존을 목표로 하는 환경 지속가능성 캠페인을 진행 중.
- 노바티스는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성 녹색 채권을 발행.
- 다케다는 2019년부터 탄소 중립을 유지, 2025년까지 공장과 내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%까지 줄여 2040년까지 탄소 제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.
- 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규제에 대한 인식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국내 제약업체들의 경우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태.
-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'제약업계의 ESG 수준은 타 산업군에 비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며 정부의 정책 중점도에 맞게 협의를 이뤄나가고 있다'고 언급함.
- 하지만 서서히 ESG 경영의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(CETA7)과 같은 해외기관에서 진행하는 ESG 평가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도 대응방안을 검토 중.
- 특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'제약산업은 의약품 생산, 폐의약품 처리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'면서 '정부는 업계 특성에 맞춘 현실적인 ESG 접근법을 제시해 세심한 지원 및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'이라고 말함.
- 이에 맞춰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친환경 경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.
- 동아쏘시오그룹은 전 계열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, 제품 친환경 리뉴얼, 사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 중.
- 보령제약은 혈액투석액 용기 업사이클링을 위해 재활용 전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음. 회수된 PE 용기는 플라스틱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.
- 일동제약은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통한 캠페인, 재활용 포장재인 그린 에코 패키지를 도입.
- 이 밖에도 아직은 다수의 제약/바이오 회사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.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